김진춘 (주)한국지오텍 대표이사

(주)한국지오텍은 2000년에 설립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라우팅 및 고화처리 분야의 전문기업으로서 그동안 수행한 5건의 국가발주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1개의 환경신기술, 16개의 특허기술, 실용신안 3건 및 개발된 관련제품에 대한 17건의 상표를 등록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기자재 판매 및 시공업 등 종합적인 업역을 구축하여 기술을 선도하는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주)한국지오텍 김진춘 사장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기업경영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들어본다.

일 시 : 2009년 2월 11일 11:00
장 소 : (주)한국지오텍 회의실
참석자 : 김진춘 대표, 한국기술사회 박상국 홍보위원, 구수연 사원

대표님의 주요 약력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오.

저는 대학교 토목과를 3곳을 다녔습니다. 학부는 고려대, 석사는 서울대, 박사는 한양대에서 수학하였습니다. 직장생활은 대림산업 해외기술부에서 시작하여 만 2년간 다니면서 건설회사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고, 1987년부터 쌍용양회 중앙연구소로 직장을 옮겨 건설재료 개발업무를 14년간 수행하였습니다. 1993년 그라우팅용 마이크로시멘트 국산화 연구과제를 선정하면서부터 기술자로서의 전문성이 그라우팅과 고화처리를 이용한 연약지반 개량분야로 방향성이 설정되었고 2000년부터 연관된 연구개발업, 기자재 판매업 및 시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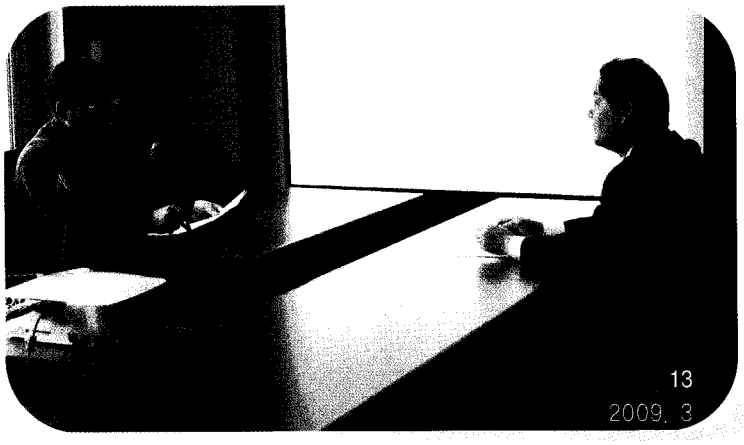
가족 관계와 평소 생활신조는 어떠신지요?

처와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캐나다에서 유학중에 있고, 큰 아들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올 6월에 졸업합니다. 둘째 아들은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있으며 장래 영화업에 종사하고 싶다합니다. 거기다가 저의 직원들이 저의 제 3의 가족입니다. 제가 하는 그라우팅 분야는 영세한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업체는 극소수입니다. 비단 국내 업체들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술개발에 주력하다보면 반드시 세계적인 업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들들과 직원들에게 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든 한가지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이것저것 구경다니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시끄럽고 그늘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다 자기하기 나름입니다.

기술자로서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나라 토목공학과 커리큘럼은 시공, 구조, 도로, 지반, 수자원 등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어느 학교에서도 수화반응(hydration) 지식이 요구되는 시멘트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하는 곳이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 시멘트를 접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시멘트에 대해서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쌍용양회 중앙연구소에서 14년 정도 연구에 종사하면서 토목전공자로서 재료에 대한 안목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라우팅과 고화처리는 시멘트와 주입 및 교반장비가 융합된 연약지반 개량기술입니다. 이런 융합기술에 대해서 연구경험이 풍부한 필자는 자연스럽게 국가에서 발주하는 대형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연구 과제를 통해서 개발한 특허와 신기술을 활용하여 연약지반 개량분야의 다양한 시공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즉, 침투주입이 요구되는 지반에서 침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시멘트계인 MSG(micro silica grouting) 주입재를 개발하여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에 대량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차수·보강 그라우팅의 시공관리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동화 주입관리 장치인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개발하여 차수·보강 그라우팅, 터널 강관보강 그라우팅, 사면안정 강관보강 그라우팅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압삭공 또는 강제교반으로 파일 또는 벽체를 조성할 때 조성중인 기둥체의 직경을 조절하고 발생된 슬라임을 재활용할 수 있는 CJP(computer-controlled jet piling)공법과 CRM(continuous-wall using recycled mud)공법을 개발하여 연약지반 보강 및 연직차수벽 조성공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발생토 및 고화재와 기포의 조합기술에 의해서 유동성 및 경량성이 확보된 주입재와 AGS를 결합하여 폐굉도 및 구조물 배면 등의 충전·매립공사 시 충전도를 평가하면서 시공할 수 있는 ASEM(aerated soil eco mixture)공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차단 및 인공호수 유지용수 유출 차단을 위한 고화토계 라이너 조성공사를 위한 소일콘공법을 개발하여 다수의 턴키공사에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쌍용양회 중앙연구소에서 습득한 재료에 대한 기본지식과 토목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건설현장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융합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로 그라우팅에 대한 재료, 시공장비 및 시공관리 분야에서 많은 기술개발 실적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라우팅 전문연구소를 개설하여 현장성이 뛰어난 실험과 장비개발, 시공관리기술 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라우팅분야의 기술은 대부분은 일본 등을 통해서 선진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 건설시공의 안정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라우팅 기술도 종합적으로 상당수준 발전하여 선진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중국시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해저터널 설계 및 시공 관계자들과 기술교류가 시작되었고 학계 및 기업인들과 교류를 통해서 진출기반을 확보하려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까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앞에서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발주 및 시행체제가 우리나라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상호 협력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저희 회사는 2000년에 설립되어 2007년까지 R&D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인원과 매출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공에 참여하면서 상시직원 5명에 약 2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공 및 해외진출에 치중하면서 매출이 급속히 확장될 것이며 올해는 약 70억원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재료, 장비 및 시공기술을 확보하여 그라우팅으로 해외에서 돈 벌어보자는 것이 저희 회사의 꿈입니다.